

“기술 기반 커리어 설계… 미래를 함께하는 플랫폼 될 것”



인터뷰

윤현준 잡코리아 대표

윤 대표, 기술 중심 조직문화 혁신
‘커리어 설계 플랫폼’ 전환 주도
AI 추천·연봉예측 등 서비스 강화



윤현준 잡코리아 대표

/잡코리아

잡코리아가 전문 엔지니어 출신 CEO의 손에서 전면적인 플랫폼 전환에 나섰다.

15일 잡코리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CTO 출신 윤현준 대표는 2023년 말 잡코리아에 합류한 뒤, 기술을 넘어 조직 전략과 산업 구조까지 개편하는 체질 개선에 착수했다. 단순히 공고 등 록하고 이력서를 올리는 채용 매칭 플랫폼의 틀을 벗고, 데이터와 AI 기반의 커리어 설계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주도하고 있다.

윤 대표는 “이제 잡코리아는 사람의 경력 흐름 전체를 함께 설계하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며 “구직자에게는 다 음 커리어를, 기업에는 채용 전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가시적인 변화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잡코리아는 올해 4월, AI 기반 연

봉 분석 서비스 ‘원픽’을 선보였다. 사용자가 특정 공고에 진입하면, 해당 기업과 직무 기준으로 연령대별 연봉 예측 정보를 제공해, 실제 지원 가능성과 현실적인 연봉 기대치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연령, 경력, 산업군, 직무 데이터를 통합해 자동 분석하는 이 서비스는 단기간에 이용률이 급증했다는 설명이다.

윤 대표는 이러한 기술적 접근이 “플랫폼의 중심을 단순 매칭에서 커리어 내비게이션으로 전환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잡코리아는 내부적으로 생성형 AI 서비스 ‘롭(LOOP)’도 개발해 일부 서비스에 도입했다. 구직자가 이력서 작성, 공고 해석, 자소서 작성 관련 질문을 입력하면, AI가 문맥 기반 답변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단순 Q&A를 넘어 구직자의 커리어 컨텍스트에 따라 답변의 맥락을 조정하는 대화형 피드백 서비스로 진화 중이다. 이를 통해 플랫폼 내부 사용자 경험은 물론, 구직자의 서비스 체류 시간과 반복 이용률도 함께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플랫폼 구조 혁신과 함께 조직 운영 방식도 기술 중심으로 재편했다. 윤 대표는 취임 이후 개발 조직을 기능별로 세분화하고, 서비스기획-데이터분석팀을 확장해 사용자 중심 피드 설계를 강화했다. 동시에 ‘빠르게 시도하고 더 빠르게 실패하자’는 원칙 아래 전사 OKR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실험 중심의 실행 문화를 뿌리내렸다.

전통적인 ‘HR 포털’ 조직에서 ‘프로덕트 기반 테크기업’으로의 정체성 전환을 위한 내부 구조 개편이 본격화된 셈이다.

업계에서도 잡코리아의 변화는 확인되고 있다. 특히 MZ세대 중심으로 플랫폼 재사용률과 피드 선호도가 높

아지며, 사용자 점점과 반응성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HR 업계 관계자들은 “기술 중심의 플랫폼 설계가 이제 채용 서비스를 넘어 산업 구조 자체를 바꾸는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HR시장에 금손이 나타났다”는 반응까지 나온다. 실제로 AI 추천, 연봉 예측, 실시간 피드백 시스템 등은 여타 채용 플랫폼 대비 사용자 몰입도에서 경쟁 우위를 보여주고 있다.

윤 대표는 최근 한국직업정보협회 제2대 회장에 취임하며, 민간 채용 플랫폼 간 연계와 공공 협업 체계 강화에도 나섰다. 협회는 사람인, 인크루트, 알바천국 등 20여 개 플랫폼이 참여하는 단체로, 고용노동부 등과의 정책 연계 및 직업정보 고도화를 위한 실무 협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윤 대표는 “데이터는 사유물이 아닌 공공재에 가까워야 한다”며 “잡코리아를 넘어 산업 전체가 직업 정보 구조를 함께 바꾸는 생태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술 기반 커리어 설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잡코리아가 구직자의 다음 10년을 함께 그릴 수 있는 플랫폼으로 확장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에코프로, AI혁신실 신설

에코프로가 AI 경영을 가속화하고 있다. 지주사에 AI혁신실을 신설해 가족사들의 AI 도입 및 활용을 적극 장려 제조원가를 절감하고 R&D효율성을 향상한다는 계획이다.

에코프로는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AI혁신실을 신설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존 디지털 전환(DT)실의 기능을 확대 개편해 AI 전문가를 전면 배치했다.

AI혁신실은 에코프로 그룹의 AI 전환을 위한 컨트를 타워로 가족사 AI시스템 도입 및 확산을 통해 제조, R&D, 사무 분야 전반에 걸쳐 AI 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다.

송호준 에코프로 대표는 “AI를 업무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회사 전반에 AI마인드와 프로세스를 구축해 나가야 어떤 외부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 가격을 낮추고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AI가 제조 및 연구개발 등 경영전반에 녹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유진기업, ‘ConLive’ 출시

유진그룹 모회사인 유진기업이 국내 레미콘업계 최초로 디지털 플랫폼 ‘ConLive’를 출시했다.

15일 유진그룹에 따르면 이번에는 선보인 ‘ConLive’는 건설사와 레미콘 제조사가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레미콘 관리 업무를 스마트하게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이다.

주요 기능은 ▲품질관리 ▲출하관리 ▲일반관리 등으로 레미콘 관련 핵심 업무를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다.

유진기업 관계자는 “ConLive는 건설산업 전체의 업무 방식과 품질 관리 방식을 바꾸는 혁신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대한항공, AAM·스마트 드론 등 첨단 기술력 뽐내

(미래항공모빌리티)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UAM 솔루션 ‘ACROSS’ 공개
“항공우주사업 분야 도약 준비”

대한항공이 미래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 비전과 항공우주사업 기술력을 선보였다.

대한항공은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5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WSC E)’에서 기업 가치 체계 ‘KE Way’를 중심으로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의 우수한 역량과 스마트 모빌리티 관련 최신 기술을 선보였다.

부스에는 ‘Connecting for a better world(더 나은 세상을 위한 연결)’라는 기업의 존재 이유 아래, 대한항공의



‘2025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WSC E)’ 대한항공 부스 전경

기술이 적용된 미래항공모빌리티(AAM), 디지털 MRO, 스마트 드론 등 3개의 섹션으로 나눠 첨단 기술력을 공개했다.

특히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접목된 인스펙션 드론은 항공기 외관검사

시 고소작업 환경에 대한 정비사의 안전 문제를 해소하고 정비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만큼, 일부 성능을 개량해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외에도 항공기 결함 발견 시 인공

지능(AI)을 활용해 적합한 정비 활동 계획을 제안하는 챗봇, 장기 체공이 가능해 육·해상 환경 조사 및 정찰, 물품 배송 등에 적합한 하이브리드 드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공개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전시에서 UAM 운항통제·교통관리 솔루션인 ‘ACROSS’를 공개, UAM 서비스의 혁신과 안정성을 보여준다는 방침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 참가는 대한항공의 첨단 기술과 혁신을 미래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에 적용하고, 항공우주사업 분야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양성운 기자 ysw@

중견기업 63% “하반기 투자 계획 없어”

“투자 활성화 위한 정책지원 필요”

중견기업 10곳 중 6곳 가량은 하반기 투자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계획이 ‘있다’고 밝힌 대부분의 중견기업은 국내 설비 투자 또는 연구개발(R&D)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모습이다. 중견기업들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 개선, 물가 안정, 내수 활성화 등의 정책 지원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15일 내놓은 중견기업 800개사 대상의 ‘2025년 하반기 중견기업 투자 전망 조사’에 따르면

‘투자 계획이 없다’는 62.8%, ‘투자 계획이 있다’는 37.2%로 각각 나타났다.

‘없다’는 중견기업들은 ▲불확실한 시장 상황(38%) ▲투자 불필요 업종(25.5%) ▲경영 실적 악화(19.3%) 등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반면 ‘있다’는 ▲기존 설비 개·보수(36.2%) ▲R&D(20.5%) ▲공장신·증설(18.8%) ▲친환경·ESG(6.7%) ▲인수 합병(6%) 등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투자유형은 ‘국내 설비 투자’(69.5%), ‘국내 R&D 투자’(40.3%)가 대부분이었고, ‘해외 투자’는 17.4%로

나타났다.

하반기 투자 계획이 있는 중견기업의 79.9%는 상반기 대비 투자 규모를 ‘확대’(39.3%) 또는 ‘유지’(40.6%)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투자 규모 ‘축소’는 20.1%에 그쳤다.

투자자금 조달 방법은 ‘내부자금 활용’(49.6%)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외에는 ‘금융권 차입’(39.6%), ‘주식·회사채 발행’(5.8%), ‘정책 금융 활용’(5%) 등이 뒤를 이었다.

이런 가운데 중견기업인들은 투자 활성화를 위해 ▲R&D·설비 투자세제 지원 확대 등 세제 개선(37.1%) ▲물가 안정 및 내수 활성화(22%) ▲금리 인

하(17.9%) ▲노동 등 경영 환경 개선(10%) ▲정책 금융 확대(9%) ▲임지 등 투자 규제 완화(3.8%) 등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견련 이호준 상근부회장은 “경제 회복의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내수 회복 기대, 주식시장 활성화, 정국 안정 등으로 일부 확대되고 있는 중견기업의 투자 전망을 가시화할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과감한 규제 해소, 세제 지원 및 정책 금융 강화 등 중견기업의 투자 확대를 견인할 실효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적극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

공영홈쇼핑

10년간 7조3000억 판매

공영홈쇼핑이 10년간 중소기업, 소상공인, 농축수산물 등 총 7조3000억원 어치 판매했다.

공영홈쇼핑은 지난 14일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개국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영홈쇼핑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100% 우리 중소벤처기업과 농축수산물 판매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2015년 7월 14일 개국했다. 지난 10년간 4600여 개의 협력업체와 함께 2만개가 넘는 상품을 판매해 누적 7조3000억원의 판로지원액을 달성했다.

우수 협력사 대표도 기념식에 함께했다. 공영홈쇼핑과 지난 10년간 함께 성장한 협력사 중 10곳을 선정해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임직원 공모를 통해 선정한 미래 비전 슬로건 ‘가치를 담다, 미래를 잇다’도 발표했다.

/김승호 기자